

#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 스토리부문)」 종합심사평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에 응모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종심의를 진출한 49개 작품 중 1개 작품이 타 공모전 수상, 2개 작품이 계약을 사유로 심사에서 제외되었으며 12명의 심사위원이 재택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수상작 15편 선정 이후 타 공모전 당선 및 지원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3개 작품이 수상권에서 제외 되었으며 순위대로 예비 작품 3편을 추가로 선정하여 최종 수상작 15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스토리 공모전에는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작품이 참여하였고, 희망하는 사업화 영역도 다양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꼼꼼하게 평가했습니다.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제작가능성, 분야확장성까지 5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심의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상 작품으로는 <폭도, 붉은산의 맹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구한말 시대라는 차별적 시기를 택해, 흡입력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펼쳐고 있어 출판이나 웹툰, 영상으로의 IP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북촌>은 일제 강점기의 한옥 건축가를 소재로 주인공의 의지와 활약이 잘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초이스>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가 좋았고, 애니메이션으로 사업화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윤씨남정기>는 양반과 천민이지만 동지가 되어 도망치는 두 여인의 탈주극이 안타깝고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전기수>는 역사적 사건을 잘 증폭시켰으며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의외성과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우수상으로는 <더덕정승 한효순>, <9급 공무원 염라>, <모던택시>, <무동>, <꽃구름 바람으로 지었노라>, <전체공개>, <틀림없는 여자 오엽주>, <2루에서 키스하다>, <빌런 승냥이 사냥>, <조선춤꾼 춘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열 다섯 편의 작품을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추후 문제 될 수 있으나, 작가의 창의력을 제한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소재들이 지나친 자극성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각각의 장점들이 있고, 원천 스토리로서 다양한 형식과 장르로 확장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수상하신 작가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선정된 작품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